

직불금 늘리고 공익수당 지급...강진군 농업인 소득안정 총력

벼 경영안정 자금·육묘비용 쿠폰 등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강진 반값 여행' 지역 농산물 구입 유도 농가 경영안정 기여

강진군이 이상기후와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전남도 내에서 벼 경영안정 자금 예산 중 최고 수준인 83억원을 군비 70억원 이상을 포함해 편성했으며, 지난 설 명절 이전 6600ha 6300 농가에 대해 경작면적에 따라 최소 13만4500원에서 최고 344만5000원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벼 경영안정 자금의 경우 지난 2008년 17억원으로 시작해 사업비를 늘려왔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 쌀값 하락 등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벼 육묘비용 지원사업에 14억2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했다. 공익직불제 벼 재배 필지, 간척지를 포함해 전략

작물 직불제, 논공 재배 지원사업 참여 필지 등 총 8900ha 6300여 농가에 대해 육묘비용 지원 쿠폰을 제작해 오는 3월 중 배부할 계획이다.

또 벼 대체 작물 육성과 소득작물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공 재배 확대를 위해 논공 재배 육성 장려금 7억원을 군비로 편성했다. 전략 작물직불금 지급 단가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인 1ha당 총 350만~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 대비 인상돼 구간에 따라 1ha당 136만~215만원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기본직불금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림어업 경영체당 6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7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진행했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면서 로컬푸드와 직거래사업 매출도 꾸준히 증가해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진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강진군 제공>

며, 대상자 검증 등의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농가에 배부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

원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건강과 교육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에 20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28일까지 접수 후 3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다.

강진군 직영 쇼핑몰 '초록민음'은 지난해 총매출 1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배 성장했다. 강진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초록민음강진'의 매출은 전년 1억원에서 15억5900만원으로 15배 증가하며 강진 농특산물 판매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강진 쌀 매출 역시 99억7600만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정책과 연계해 관광객들이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면서, 로컬푸드와 직거래사업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근본이 되는 농업이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속도 낸다

농어촌공사 지사와 위수탁협약

장성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위해 스마트농업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장성군은 최근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위수탁 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의 골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공사 추진' 등이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391억원 규모의 농업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13.1ha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에 공동육묘장, 스마트산지유통센터, 가공센터 등을 구축하고 장성레몬, 아열대채소 등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 성장과 단지화·규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장성군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 농

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에 주력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농촌지도자회 대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40여명 참여 심장 압박·인공 호흡·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배워



담양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양군농촌지도자회 대의원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담양소방서 소방위들이 전문 강사로 진행했으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실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은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법 등을 배우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심폐소생술 기술을 체득했으며 직접 실습에 참여해 심폐소생술의 기본 원칙인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을 적용해 보며 중요성을 체감했다.

농촌지도자회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대의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올봄 회원들에게도 안전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공정한 임원 선임을 위해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를 위해 화순군과 군의회, 재단 이사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제1차 회의를 통해 대표이사 공개모집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대표이사 임원 모집 지원서 접수는 3월 4일부터 10일까지다.

대표이사는 문화관광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조직의 변화·혁신을 주도하고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자로 유관기관·단체와 소통하며 대외관계를 형성·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 임명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선임을 통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나주시 "비만 예방 건강걷기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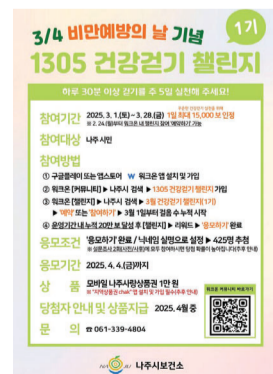
3월 1~28일 '건강걷기 챌린지' 20만보 달성 추천 상품권 증정

나주시가 성인병의 주범인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나주시보건소는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1305 건강 걷기 챌린지(1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총 4회 운영할 계획이다.

'1305'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챌린지 참여는 스마트폰 걸음 수 측정 앱 '워크온'을 활용해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워크온 앱에서 '나주시보건소 1305 건강 걷기 챌린지'에 가입 후 '예약' 또는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시보건소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20만 보를



달성에 리워드 등 모를 안료한 참여자 중 425명을 추천해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1만 원을 4월 중에 증정할 예정이다.

이 챌린지는 지난해에도 시민 4000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실천율 조사 결과 52%에서 62%로 10%p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용근 나주시보건소장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 걷기에 함께 참여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성인병 예방 효과도 누리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본격 추진

위생용품 배부·남도음식거리 조성

함평군이 올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함평군 보건소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해 모범음식점 등 음식문화실현업소를 대상으로 접객용 앞치마와 위생모 등 위생용품을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위생적인 음식 제공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좋은 식단 실천, 앞치마 사용, 위생적인 외식 서비스 제공 등 외식 선진화 사업의 일환이다.

보건소는 함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옛 어머니의 따뜻함과 정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맛도 멋도 함평'이 적힌 위생모와 멋스러운 앞치마를 입고 함평만의 특색 있는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업체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음식 문화개선 실현업소 모니터링과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함평군은 올해 남도음식거리조성 사업으로 업소 주변 환경개선, 편의시설 설치하며 함평의 대표 음식을 브랜드화해 연중 관광객의 발



함평전지한우프리카 위생용품 착용 모습.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 물축제 '축제콘텐츠 대상' 13회 연속 수상

장흥군은 전남남 물축제가 최근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 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지난해 열린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67만 5천여명이 방문하고 649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으며 대곡 송크란 축제 전통공연 운영 등으로 물축제 세계화의 출발을 알린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콘텐츠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2012년 제정한 상으로 축제의 경쟁력 확보, 지속적 개선 동기 부여, 축제 이미지 제고,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시상하고 있다.

정남진 물축제는 이번 수상으로 축제콘텐츠 대

상의 13회 연속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으며,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전남도 2025 우수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비슷한 축제들이 생겨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물축제 세계화를 위한 콘텐츠와 장흥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인이 즐기는 K-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세일글

"신뢰받고 존중받는 판결에 최선을 다할 것"

이정우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민·형사 재판과정에 지역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존중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에 부임한 이정우(45·사진) 지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자기 본분을 지키고 백성을 섬기고 존중한 자제'로 임무를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 지원장은 "50년이 훌쩍 넘는 청사가 낡고 비좁아 취약계층의 형사재판과 다문화가족의 이혼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청사 신축 현안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 책임자로서 현재 침체한 직장 분위기를 전환하고, 활기찬 법원으로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지원장은 현안대 법대를 졸업한 후 지난 2005년 사시 47회(연수원 38기)에 합격해 임용됐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연구관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